

# 洞神祭와 솟대 신앙

—상주 원흥리의 솟대를 중심으로—

金 基 卓

## 〈目 次〉

- |                    |                 |
|--------------------|-----------------|
| 1. 서 론             | 3. 2 동신제의 실제    |
| 2. 솟대의 문헌기록        | 4. 솟대신앙의 의미와 역할 |
| 3. 원흥리 솟대신앙과 동신제   | 5. 결 론          |
| 3. 1 솟대 신앙의 형태와 기능 |                 |

## 1. 序 論

민간신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민중생활을 지배해 온 집단 신앙의 기능을 갖는다. 민간신앙이 오랜 세월을 두고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곧 민중의 지지와 공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공명과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민중생활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 주었음을 의미한다. 민간신앙은 마을 공동체 신앙으로서 각 개인 및 가정과 마을 전체를 위한 祭儀의식이다. 따라서 마을의 뒷산 중턱에는 산신당이 위치하고 마을 입구에는 서낭당, 장승, 솟대, 탑, 선돌, 당수 나무 등이 두세 가지씩 복합되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을 공동체가 갖는 민간신앙의 聖所로서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정확한 규명은 마을공동체가 갖는 신앙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역사를 아는 데 우선 필요하다. 또 이들 신앙대상물이 서로간에 어떻게 상호관련이 되면서 민간신앙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도 개개의 신앙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尙州 元興里의 솟대신앙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상고시대부터 전해 오는 솟대의 전승형태와 그 기능을 여러 측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원흥리의 솟대신앙이 동제와 복합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마을의

신앙대상으로 잔존하여 오는 민간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 2. 솟대(蘇塗)의 문헌기록

솟대의 문헌기록을 볼 때 어떤 교조(敎祖)에 의한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라 원초부터 인간 본연의 종교욕구에서 자연발생한 민간신앙의 하나다. 곧 민간신앙은 옛부터 인간생활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반영이라고 본다.

中國의 「후한서」와 「삼국지」 韓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항상 5월 밭농사를 마치면 귀신을 제사한다. 晝夜 무휴로 무리지어 노래 하고 춤춘다. 그 춤은 문득 수십명이 서로 따르며 땅을 끌어서 가락을 짓는다. 10월에 농사를 마치면 역시 이와 같이 거듭한다. 여러 나라에서 각기 한 사람을 세워 天神을 主祭케 하는데 이를 天君이라 일컫는다.

또 蘇塗(魏志에 이르기를 여러 나라에 각기 別邑이 있는데 이를 蘇塗라 한다. 여러 도망자가 그 속으로 도망하면 모두 돌려 보내지 않는다. 蘇塗의 뜻은 浮屠와 닮은 데가 있다 하였다)를 세우는데 大木을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놓고 鬼神을 제사한다.<sup>1)</sup>

항상 5월 파종을 마치면 귀신을 제사하는데, 무리지어 모여서 晝夜로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신다. 그 춤은 수십명이 함께 일어서서 서로 따르며, 높게 낮게 땅을 끌리는데 手足이 상응한다. 그 가락과 춤사위가 鐸舞와 닮은 데가 있다. 10월에 농사를 마치면 또한 이처럼 거듭한다. 귀신을 믿어 國邑에서 각기 한 사람을 세워 天神을 주세게 하니 그 이름을 天君이라 한다. 또 여러나라는 각기 別邑을 가지니 이름하여 蘇塗라 한다. (소도는) 大木을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은 섬긴다. 여러 도망자가 그 속에 도망하면 모두 돌려 보내지 않아 도적들이 좋아한다. 소도를 세우는 뜻은 浮屠와 닮은 데가 있어 소행의 善惡이 다르다.<sup>2)</sup>

- 1) 常以五月田竟 祭鬼神 晝夜飲酒 群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踏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 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魏志曰 諸國各有別邑 爲蘇塗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蘇塗之義 有似浮屠 建大木以懸鈴鼓 事鬼神(後漢書 東夷傳韓)
- 2) 常以五月下種 訖祭鬼神 群聚歌舞飲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怪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各之爲蘇塗 立大木懸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위의 문헌기록 이외에 또 馬韓의 기록에도 보면 5월 파종을 마쳤을 때와 10월 농사일을 마쳤을 때에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밤낮 없이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sup>3)</sup>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5월, 10월의 농공시필기에 맞추어서 제사를 행한 계절제, 주기제(Periodic festival)와 그 제후에 성역인 '別邑'에 '蘇塗'를 說壇하고, 大木을 세우고 거기에 방울, 북 등을 달아 마을의 공동체의를 가졌다. 이른바 이러한 공동체와는 산신제를 비롯하여 서낭제, 동신제, 장승, 솫대, 탐, 선돌 등 두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곳에서 제사지냈고 이 장소가 마을 공동체의 제의장소이며 민간신앙의 성소로서 성격은 더욱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위의 문헌에 나타난 '蘇塗'(솫대)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蘇塗라고 하는 것이 솫대·곶대·수구막잇대 등의 명칭으로써 傳來하여 지금도 鄉村에는 除厄神으로 彫刻한 神鳥를 끝에 얹은 神杆을 常時 庭內에 세워 두는 風習으로 남아 있다. 神杆은 古代에는 不威文化系 公同의 靈標였던 것인데, 滿州에서는 索莫杆으로서, 朝鮮에서는 sot-tai 其他로서, 日本에서는 神社 앞에 세우는 鳥居(トリエ)로서 面影을 전래 오고 있다.<sup>4)</sup>

우리의 立竿民俗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솫대·별신시대·서낭시대·영등시대·벚가리시대·성주시대 등 六種이다. 【後漢書】·【三國志】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三韓에는 立木祭天의 儀杆이 傳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솫대는 長竿에 木造鳥形을 붙여 세우고 이를 솫대, 혹은 솔시대라 부르는 것인데, 실시대·섯대·화춥대(華柱竿)·거릿대(街里竿)·수살막이(水殺防)등의 異名이 있다. 그 機能은 대개 里程標 또는 부락의 守護神이요, 그 위치는 邑村·洞口·境界·路傍 등이 있다.<sup>5)</sup>

蘇塗는 그곳에 세우는 「솫대」(立木)에서 取音된 이름이라 함이 普通이나, 나는 그보다도 高臺, 高爐의 語인 「솫터」의 音譯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再考를 要한다. 그런데 蘇塗의 大木(솫대)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 하면, 이는 즉 檀君神話에 나타나는 神檀樹 그것의 變遷이요, 또 萬州風俗의 神竿(索摩=some)

3) 馬韓常以五月 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各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各之爲蘇塗 立大木懸鈴鼓 事鬼神 諸迷亡至其中 皆不還之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三國志 卷30 馬韓)

4) 崔南善, <朝鮮及 朝鮮民族> <不威文化論>, 1927, p. 50.

5) 趙芝薰, <新羅의 原義의 詞源歌에 대하여> <조지훈 전집> Ⅷ 1964, p. 121.

古代 日本의 神龍(ヒモロギ)한 것으로 처음에는 樹木崇拜에서 出發하여 後에 神의 降下階段 및 그 住處, 또는 神域의 標示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大木에 달린 방울과 북은 祭祀 時에 神을 맞이하고 즐겁게 하는 神樂의 一種으로 解釋된다.<sup>6)</sup>

神木이 세워진 곳은 우주의 중심이요, 거룩한 장소이다. 단군은 신단수를 중심으로 神市를 세웠고, 주몽은 神木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세웠다.

그리고 보면 朱夢의 본 뜻은 활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새 모양의 神이 내려 앉은 神木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닌가 한다. ……中略……

즉 주몽이 큰 나무 아래에서 새 모양을 한 神母로부터 씨앗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징하는 듯이 보이는 습속들이 있다. 곧 고구려에서는 十月이면 木神을 세우고 제사했으며, 삼한 때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귀신을 섬겼는데 이것을 蘇塗라 불렀다. ……中略……

오늘날도 나무로 된 새 형상을 장대 끝에 올려 놓은 솟대(神竿)를 세우는 풍속이 남아 있는 것을 본다.<sup>7)</sup>

소도가 '古代 希臘·羅馬에 있어서의 아씨럽과 같은 성질을 가진 신성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적되지 오래다. 소도의 大木은 현존 민족의 솟대, 또는 소살대의 전신 이거니와 시베리아 여러 곳의 巫木의 일종임은 의심할 바 없다.

소도의 大木에 매달았던 방울과 북은 대표적 무구다. 방울은 오늘날도 서낭대와 공존하면서 洞神祭의 주요한 神格表象이 되고 있다.<sup>8)</sup>

지금까지의 인용내용은 주로 蘇塗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솟대 기능 외에도 역사적 생성원인과 역할에 대하여 金宅圭 교수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播種이나 成長儀禮로 보이는 三韓 諸國의 別邑=蘇塗=聖域에서 행한 天神祭는 大木을 세우고 鈴鼓를 걸고 國邑에서 내세운 一人의 '天君'이 主祭하였으며, 祭後에는 連日 晝夜無休로 飲食歌舞하는 飲福의 響宴이 벌어졌다. 農功始畢期인 五月과 十月에 行祭되었으니, 그 神格도 農功과 관련된 神들임에 틀림없겠으며, 이 神格이 大木=降神處=神座에 내려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幣束·鈴鼓 등 神具로

6)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1959, p. 304.

7)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1975, 서울:연세대 출판부, p. 40.

8) 金宅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1977, 서울:일조각, p. 25.

서 迎福 祈穰의 國中大祭를 하였던 것이겠다.

「三國志」에 보이는 ‘又諸國各有別邑’과 弁辰條의 ‘亦十二國又有諸小別邑’에도 보이는 聖域인 蘇塗가 ‘其立蘇塗之意 有似浮屠’라는 記錄과 一見 矛盾된 듯이 보인다. 즉 浮屠를 塔像으로 理解한다면, ‘別邑’과 ‘蘇塗’와 ‘大木’을 同格으로 概念한 듯한 이 記錄들에 疑問이 생기기 때문이다. 孫晉泰는 「欽定滿洲 源流考」卷18 國俗祭天條에 ‘按又大木之儀 又與滿州立杆祭祀之儀相合’이라 하여, 大木의 명칭을 蘇塗로 이해한 것은 옳다고 지적하고 있거니와 필자는 聖域인 別邑으로서의 蘇塗와 降神處인 大木이 당시 동일인 개념을 혼동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北方 高句麗의 기록에 神體(隱神)와 聖所(隱穴)와 祭場(東上祭之)과 神座가 분명히 유별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sup>9)</sup>

위의 내용은 우선 무속신앙의 입장에서 고찰한 것으로 ‘別邑’과 ‘蘇塗’와 ‘大木’을 同意의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즉 同意의 것으로 해석하면 현존하는 ‘솥대’를 蘇塗의 後身으로 해석하는 적잖은 무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현존하는 솥대는 대부분이 立大木의 형상에다 새 모양을 만들어 얹은 형태이고, 또 古記에는 塔像의 ‘浮屠’를 담은 蘇塗<sup>10)</sup> 즉 ‘돌무덤’이 있는 어떤 일정한 신성공간을 가르키는 別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별읍은 삼한·삼국의 자생적 신앙의 성역으로서 불가침의 신성공간이며 소도는 현존하는 돌무덤이나 대마도의 소도(卒土)에 옛모습을 남기고 있는 제단이며, 그리고 大木이 현존하는 솥대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 하였다.<sup>11)</sup>

하지만 蘇塗는 古記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는 立大木의 경계 표시로서 神體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오늘날의 蘇塗의 꼭대기에 새모양을 얹은 것은 후대의 神體變型일 것이다.

蘇塗는 일종의 원시적 경계표식으로 오로지 單木을 건립한 것이 그 기원적 사상이며 가장 원시적인 형태일 것이다. 그것은 건립됨과 동시에 원시 심리에 의하여 경계신의 棲所(祠)·경계신의 神體(神主)로 신앙되고, 이에 차례로 행할 때에는 제단으로서의 역할도 하였을 것이며, 경계신의 성격으로부터 昆落의 수호신·부족의 재산 및 생명의 수호신이라는 사상이 생장하였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

9) 金宅圭, <韓國部落慣習史>, <한국문화사대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pp. 643-650.

10) 註 1, 2, 3 참고.

11) 金宅圭, <蘇塗と卒土>, 三上次男博士 喜壽紀念論文集 歴史篇, 平凡社, 1984, pp. 219-233.

다.……中略……竿上的鴨形木鳥는 어느 때부터의 전승인지 未詳하고 또 그것이 무슨 새인지도 알 수 없으나 기원 당초부터의 부수물이 아닌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sup>12)</sup>

위의 인용에서 본 바와 같이 蘇塗는 마을의 경계신으로서 單木이 원초적인 형태일 것이고, 그 자체가 神主와 棲所(祠)의 의미 기능이 부여된 것일 것이다.

결국 솥대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신제의 제단으로 모셔지면서 부락의 재산 및 모든 재앙, 생명의 수호신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소도는 신성지역으로서의 별음이었을 것이고, 소도 내의 立大木은 天君이 天神을 맞이하기 위해 소도에 세웠던 立竿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은 본고가 다음 장에서 고찰할 상주 원흥리의 솥대신앙의 제의 과정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 3. 元興里的 솥대신앙과 동신제

#### 3.1 솥대신앙의 형태와 기능

##### 1) 건립 동기

상주의 원흥리의 솥대도 현지 古老들의 이야기를 종합할 때 일반적인 솥대신앙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액막이와 풍농을 위하여 세운 것<sup>13)</sup>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원흥리는 상주군 사벌면의 옛날 면소재지로서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평야지대로 벼농사를 주로 하는 큰 마을이다. 따라서 매년 낙동강의 홍수 범람이 간접적인 피해를 적잖이 받기 때문에 풍농의 보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솥대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정기적인 계절풍에 의한 알맞은 비가 없으면 가뭄과 홍수의 피해로 벼농사는 도리 없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마을 입구의 솥대 건립이 예전부터 농경의 성공을 회구했던 결과에서 생겼다고 본다. 오늘날 솥대의 꼭대기에 새(오리) 조각 형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물과 밀접한 뜻에서 나온 후대의 변형일 것이며, 남쪽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벼농사 위주의 마을과 풍어를

12) 孫晉泰, <朝鮮民族文化的研究> 1948, 서울:乙酉文化社, p. 219.

13) 솥대는 대체로 마을의 액막이와 풍농을 위해 세우는 일반 솥대, 행주형 지세에 뜻대로서 세우는 솥대, 과거급제를 기념해서 세우는 솥대로 크게 나누고 있다.

기원하는 해안의 마을에서 필수적인 신앙대상물로 자리를 굳혀 갔을 것이다.<sup>14)</sup>

원흥리도 벼농사를 주로 하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신제나 농경과의 관계에서 솥대신앙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옛부터 마을공동체의 제액 초복이나 질병, 풍농 그리고 개인의 안녕을 위한 신앙대상으로 여겼음을 볼 수 있다.

## 2) 위치와 형태

솥대는 마을 공동체의 공간구조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장소는 마을 입구가 많다. 마을 입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초자연적 존재들도 드나드는 장소이기에, 때로는 재액(災厄), 악역(惡疫), 부정(不淨)한 것이 침입하는 곳이기도 하다.<sup>15)</sup> 곧 마을 입구란 마을 안의 신성과 질서의 세계와 마을 밖의 부정과 무질서의 세계가 경계지워지며, 동시에 접촉되는 공간이기에 보다 신성으로서 마을 밖의 부정과 惡疫퇴치로 마을의 신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상주군 사벌면 원흥리의 솥대도 모든 재액과 악역 및 부정을 막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솥대의 형태를 보면 우선 立大木의 꼭대기에는 새 형상의 조각이 없이 마을 입구에 한 쌍으로 枯木(향나무)이 서 있다. 원흥리의 솥대는 예전부터 솥대와 선돌 그리고 枯木은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골매이’神으로 동제와 복합되어 모셔져 왔다. 그 전에는 원흥리 1구의 동구나무에서 동신제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솥대에 와서 제사를 받들어 왔으며, 신당의 명칭도 上神堂·下神堂으로 구분해 왔다는<sup>16)</sup> 것이다. 예전에는 그 주위에는 떡버드나무가 세천(細川) 제방 뚝에서부터 구십이고개(風巖里) 입구의 서낭당(돌무더기)까지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솥대 주위에만 무성한 숲이 우거져 있다.

솥대의 형태는 크고 작은 두 그루의 향나무로서 枯木이었다. 큰 솥대는 높이가 4.1m 밑거루 둘레가 66cm이며, 작은 솥대는 높이 3.7m에 밑거루 둘레가 80cm이다. 한편 솥대 앞에는 가로 90cm, 세로 52cm, 높이

14)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을 통하여 확인된 625개 솥대관계 지명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전남(217개), 경북(159개), 경남(98), 전북(76)순으로 분포되었는데 전남지방이 전체의 34.6%를 차지하였다. 전체 통계로 볼 때 중부에서 남부로 집중적인 분포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전남, 경남 해안지역에서는 솥대신앙의 원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村山智順, <部落祭>조선총독부 권, 1937, pp. 166-176.

16) 禹병철씨 이야기(76才) (상주군 사벌면 원흥리 거주)

40cm 크기의 장방형 石床이 놓여 있는데 이 돌은 원래는 없었는데 원흥1구의 동신제를 지낼 때 上神堂에만 있었던 제단으로서 동비가 없어지자 지금의 원흥1구로 합쳐지고 下神堂인 솃대애다 石床을 옮겨 놓으면서 洞祭때 제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때부터 솃대는 동제와 복합된 신앙으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

이 솃대가 언제 이곳에 세워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甲戌年(1934) 홍수때 멀리 떠내려 간 것을 다시 찾아 모시면서 지금의 마을 입구에 세워지고 산신당이 있던 1구 마을이 현재의 곳으로 합쳐지면서 상·하신당을 동시에 모셔지는 동제의 복합양상을 원흥리 솃대신앙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때부터 솃대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동시나무”라고 불렀으며, 간혹 “솃대”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솃대의 枯木이 조금도 썩지를 않고 지금까지 雙으로서 있는 그 특이한 형상으로 봐서 단순히 堂樹木이 枯死한 枯木이라 추측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때 “立大木懸鈴鼓”의 古記錄과 깊은 관계가 있을 듯한 원초의 솃대로 보여진다. 아울러 위치가 마을 입구라 하지만 다른 곳보다 높고 매우 넓직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바로 옆에 떡버들 숲이 우거진 형상은 성역인 別囿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아주 먼 옛날에 惡疫(마마)이 심하여 사람이 죽으면 이곳 떡버들 숲에 와서 風葬(떡다리)을 하였던 곳으로 이 지역은 솃대와 더불어 신성시하였으며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제단 주위의 출입을 삼가하였다고 전하였다.

### 3) 동신제와 복합양상

솃대는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장승이 기본적으로 복합되어 모시게 된다<sup>17)</sup>는 것이다. 곧 마을 입구에 솃대와 장승이 단짝이 되어 세워짐으로써 마을의 안녕, 수호, 그리고 풍농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때 솃대와 장승은 그 기능을 서로 보강하고 분담하여 재액초복의 역할을 하였다.

원흥리의 솃대 경우는 장승이 함께 세워졌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고 다만 동신제와 복합이 되어 농경과의 보다 깊은 관련성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원래는

17) 이필영, <마을공동체와 솃대신앙>, 《고고인류학논총》(손보기 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1988, 지식산업사, pp. 488-499.



상신당(동제)과 하신당(솥대)으로 구분되어 제사를 모시다가 상신당이 위치한 원흥1구 마을이 폐쇄되고 지금의 솥대, 즉 하신당을 모시는 마을로 합쳐지면서 일제시대 때는 면소재지가 되었다. 또 상·하신당이 합쳐지면서 동신제까지 복합되어 솥대신앙과 더불어 골매이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지금의 골매이신 동제로 모셔지는 것도 솥대 자체가 동제의 중요한 한 신앙대상물이고, 나아가 개인 처성의 대상이 되는 동지에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켜 주는 신앙대상물이기 때문이다.

「원흥리 <속명 : 사리(沙里)> 마을은 密陽朴氏 · 慶州李氏 · 金海金氏들의 40여 가구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는 동제를 지내는 蘇塗가 동구나무(떡버들 숲) 群 사이에 있는데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새끼줄에 창호지를 매달아 둘러치고 동제를 지내며 이 동제 때 쓰는 祭器는 蘇塗 앞에 놓인 床石 밑에 묻어 둔 그릇만 사용하고 또 제물로 쓴 음식은 朴氏 · 禹氏는 먹지 않는다고 한다. (禹五錫 : 男 76 外 4名)」<sup>18)</sup>

원흥리 솥대는 동신제와 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의 인용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원흥리 솥대는 동제와 함께 모셔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마을의 下位神이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는 主神이 되어 동민에게는 더욱 밀접하고 친근한 신앙대상물이 되고 있다.

### 3.2 동신제의 실제

洞祭는 절후제의로서 즉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쳐지는 제사다. 그 옛날 원흥리의 동제는 上神堂과 下神堂으로 나뉘어서 지내왔다. 상신당은 솥대가 위치한 원흥리 마을로 부터 북쪽 500m 떨어진 마을의 동구나무를 지칭하는데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원흥리 마을로 합쳐진 이후 상신당의 제사는 폐지되고 제단인 床石만 下神堂인 솥대에 옮겨 놓았다고 한다. 하신당은 지금 전하고 있는 雙으로 된 枯木 향나무 솥대를 가르킨다. 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마을동제에는 반드시 상신당 동구나무에서 먼저 지내고 난 다음 이른 새벽녘에 하신당인 솥대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상신당이 위치한 곳도 당시 뽕나무 밭과 함께 큰 나무들의 숲이 우거진 마을로서 지금은 집터가 밭으로 변하고 뽕나무밭 일부가 남아 있을 뿐 수목은 한 그루도 없다. 그 이후 계속 하신당 솥대에서 동제가 모셔졌는데 제사의 절차와 방법은 예전보다 간소화하였지만 지금도 그대로

18) <<경북지명유래총람>> 경북도교육위원회 刊, 1984. 8. p. 844 상주군편

부락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 1) 祭 日

춧대에서 지내는 동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에 제주와 동민의 대표 2사람이 제관으로 선정되어 제사를 지낸다. 이웃 외서면 연봉리 마을의 동신제에서는 풍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리지만 이곳은 남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침묵 속에서 엄숙히 行祭하였다.

### 2) 祭 官

제관은 제사날에 앞서 4~5일 전에 한 가정을 이루는 호주인 성인남자로서 부정없이 깨끗한 사람을 마을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다. 특히 제주 후보자들 중에서는 生氣에 맞추어서 신수 잘 보는 사람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 제관은 제주와 일을 도와주는 집사 2사람을 뽑는다. 제주는 제사를 주관하고 소지를 올릴 때는 마을에 살고 있는 성씨 가운데 호수가 많은 성씨부터 차례로 한다.

### 3) 祭 費

동제에 사용되는 祭器와 祭物의 경비는 동민들이 공동 부담하여 각 호수에 할당한다. 예전에는 원흥리 마을 1, 2, 3구가 모두 참여하였지만 지금은 1, 3구 마을만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비용을 각출하고 있다.

### 4) 祭 物

옛날에는 소나 돼지를 마을에서 잡아 생고기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육류탕으로 간소화 시켰다고 한다. 그 외에는 보통 제사음식과 같이 酒, 果, 脯를 기본 제물로 하여 지내지만, 제관의 정성에 따라 몇 가지 음식물이 첨가되기도 한다.

### 5) 祭 儀

원흥리의 춧대에 대한 제의식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동제의 제사로 모신다. 밤 11시경 신단에 도착하면 준비된 제물의 진설과 함께 제사 준비물을 점검하고 정리한다. 제사는 자정이 되어 시작하며 제사의 주요 내용은 마을에 사는 각 성씨 수대로 소지를 올리는 일이다. 소지는 제주소지와 함께 부락에 사는 각 성씨의 세대수가 많은 순서로 올려지게 된다.

이러한 제의는 새벽 첫 닭이 울기 전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에 상신당과 하신당으로 구분해서 제사를 모실 때는 저녁 일찍 시작해서 새벽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 6) 금기와 기타

동제의 금기사항은 제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된다. 특히 여러 가지로 불운한 집안에서는 소원성취를 위해 각별히 근신한다. 제사 3일 앞두고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열이를 장을 보는 그 날부터 동민은 타지의 출입을 삼가하고 외인이 마을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신성제의 기간이 설정된다. 그런데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은 타지에 출타할 때 솥대에 와서 절하고 가면 불운한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귀향할 수 있다고 믿고 항상 솥대 제단 주위를 정결히 하고 부정스런 언행을 삼가하고 있다. 제사 당일의 축문은 마을의 연장자인 노인이 짓게 되고 그것을 받아 제주가 읽고 소지 올린다. 지금은 원흥 1, 3구 마을이 공동으로 지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2구 마을도 지냈으며 전설에 의하면 원흥리는 솥대를 중시하여 12개 작은 부락이 합해져서 생긴 마을이라고 전하였다.

원흥리 동제의 신격인 솥대는 곧 신격을 받는 大木,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로 상징된다.<sup>19)</sup> 신이 대목을 통해 내려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서 질병을 막아 주고, 물의 고갈이 없이 농업생산물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믿고 있기에 지금도 마을 전체 주민들이 솥대의 제단을 함부로 다스리지 않고 개별로 치성을 드리는 장소로 잘 보존하고 있다.

## 4. 솥대 신앙의 의미와 역할

솥대는 장승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그 기원은 2천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인돌이나 조개무덤과 그 역사성을 같이 하며, 또한 중국의 문헌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성성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만큼 오랜 민속신앙의 형태다. 솥대의 의미는 신격을 받는데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로 상징된다. 신이 대를 통해 내려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서 질병을 막고 생산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믿는 것이다.

모든 민속신앙이 그렇듯 솥대도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되어 그 지방

19) 朴昊遠, <솥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1987, pp. 28-34.

적 특색을 띤다. 원홍리처럼 솟대만 세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솟대와 장승을 같이 세우는 곳도 있다. 원홍리의 경우 옛날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솟대에 상징하는 새가 없이 그냥 立大木 한 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보다 원시적이고 원형적인 것으로서 신이란 표식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상징하는 새나 오리 없이도 그 주위는 평소에도 신성한 제의장소로서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또 다른 곳은 장대나 기둥을 세워 썩기 전에 새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나 원홍리의 솟대 나무는 향나무로서 언제나 썩지 않고 세월이 가도 항상 원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을을 수호하는 골맥이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더욱 신성시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장대나 나무기둥(Poles and Poste)은 종교적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신을 모시는 제단이나 사당에도 거룩한 기둥은 필수품이었으며, 성역의 경계를 확정시켜 주는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기둥을 무너뜨리거나 베어 내서는 절대로 안되었다.<sup>20)</sup> 기둥이 꺾이고 넘어지는 일은 곧 파국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세계의 종말과 같은 뜻이었다.<sup>21)</sup> 이와 같이 홀로서 있는 장대 기둥은 살아 있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축(the world-axis)을 의미한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인 고기록과 「濟州俗 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sup>22)</sup>에서 大木과 木竿은 신의 하강처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또, 장대에 신이 내리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과 방울을 달았다는 기록은 종교적 악기인 동시에 무속신앙의 원초적인 성격을 나타내었을<sup>23)</sup> 뿐만 아니라, 소리를 울림에 따라 성역에 잡귀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한다.

결국 솟대신앙의 立大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인 동시에 神木으로서 신의 하강처에 세워졌고 무속신앙의 상징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솟대는 인간에 의해 마을을 성역화시켰고 바로 그곳이 신의 보호를 받는 세계의 중심지임을 상징하는 곳에 세워졌다고 본다.

다음으로 후대에 와서 달았다는 솟대의 새나 오리형상의 조각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sup>24)</sup>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 바람, 물, 불 등 삼재를

20) George A. Barton, 1921. "Poles and Post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ed. James Hastings, Vol. 10. p. 94, p. 97.

21) M. Eliade, 이동하 역, <聖과 俗>, 1983, 학민사, p. 24.

22) <東國歲時記> 2月朔日條

23) 金宅圭, <韓國農耕歲詩의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pp. 139-140.

막아 풍어와 풍년을 가져 달라는 기원의 상징으로 보고 해안마을의 경우는 세 개가 함께 세워진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개의 솟대가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상징성도 삼재 중에서 물과 제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sup>25)</sup> 이러한 특징은 원흥리 솟대에서조차 찾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골매이신의 동제로 받들고 있는 원흥리의 솟대는 향나무로 된 한 쌍의 枯木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원흥리 마을에서는 상신당이라 하여 지금의 뽕나무밭이 있는 곳에서 동신제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으로 현재의 솟대에서(하신당 지칭) 제사를 모셔왔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상신당으로 모시던 나무도 베어져 버리고 동네도 현재의 1구와 합쳐지면서 하신당인 솟대에다 상신당의 제단을 옮겨와 동제로 모셔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하신당 솟대는 동신제 혹은 골매이신으로 불리워진 것 같다.

원흥리의 솟대가 1개로 된 한 쌍의 枯木으로 된 것도 특이하지만 옛날 갑술년 큰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기 전에는 새나 오리를 조각하여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枯木이 立大木의 형상으로 썩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평소에도 聖域인 別畝처럼 주위를 신성시하고 특별한 일이 없이는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고 침범하지 않는 금기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

원흥리의 솟대에는 물과 연관이 깊은 철새나 오리조각이 없지만 물의 풍부함을 상징한다고 추측된다. 원흥리가 위치한 상주군 사벌면 전체의 마을 지명을 고찰할 때 물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솟대가 서있는 원흥리(元興里)를 두고 볼 때 옛속명은 ‘새리’, ‘사리’(沙里)로 불리워졌다. 새리 마을은 약 200년 전에 있었던 큰 홍수로 원래의 동네가 모두 물에 떠내려 가고, 현재의 마을 앞으로 가로 질러 흐르는 세천(細川·속칭 가늌다리)개울 옆 모래벌터에 몇 채의 오두막집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때 솟대도 떠내려 갔는데 모래 속에서 찾아서 현재의 자리에 다시 세웠다고 전함) “모래벌터에 이룬 마을”이란 뜻으로 “沙里” 또는 “새리”(모래무지)라 불리게 되었는데 원흥리라는 동명칭은

24) 일반적인 조사에 의하면 솟대의 새는 주로 오리, 기러기, 갈매기, 따오기, 해오라기, 왜가리, 까치 까마귀 등 다양하게 조각하여 달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리가 제일 많았고, 남해안 일부와 제주에서는 까마귀를 달았다는 것이다. (이필영, <마을공동체와 솟대신상>, <고고인류학 논총> 1988, 지식산업사, pp. 500-509)

25) 이필영, 위의 논문, pp. 500-501.

행정부락의 명칭으로 근대에 와서 지어졌다. 이 ‘새리’동네도 점차 농사가 잘되면서 커지자 옷새리·신새리·아랫새리로 동네가 나누어 형성되면서 각각 6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또 ‘새리’마을 중심으로 주위의 마을 이름들을 보면 물방걸(수차동, 水車洞), 들마(野村), 새두릉(新杜陵), 퇴강(退江), 퇴하(退何), 화룡골(化龍)이라 부르는 달내(達川), 바람바우(風峯) 황니이 황룡골(黃龍), 뱃가(雲城津) 배미기(德潭·배현상), 청룡골(화룡골) 등으로 이 모두 물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지명들이다. 이 가운데 배미기, 바람바우 동네 입구에는 서낭당을 상징하는 큰 소나무와 바위덩어리가 현존하면서 지금도 동제사를 모시고 있었다. 새리 마을과 바람바우마을 경계에 바위로 이루어진 서낭당이 있는데 새리마을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 배미기 마을 입구의 서낭당은 바람바우 마을의 경계에 큰 소나무가 고개정상에 있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새리”마을은 바람바우 마을, 배미기 마을과 서로 경계가 되는 위치에 서낭당이 각각 있어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솟대가 있는 새리마을은 부근의 제일 큰 마을로서 해방 전까지도 면소재지였다고 한다.

새리마을의 솟대 주위는 성수(聖樹)로 된 성역이면서 枯木이 서 있는 곳은 솟대이자 別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솟대의 향나무 枯木은 고기록의 立大木이라 하겠다. 솟대 앞에 흐르는 가늌다리(細川)세방을 따라 바람바우 서낭당까지 500m 거리에 옛날에는 혼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떡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이 숲에서 떡다리(風葬)가 행해졌다고 전한다.<sup>26)</sup> 이 떡다리 풍습은 마마가 유행하였을 때 많은 어린 목숨들이 잃게 되자 이곳 聖樹林에서 風葬을 행하는 전후에 솟대에 와서 惡疫을 물리치도록 빌고 제사를 올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옛부터 새리마을의 솟대는 액막이 즉 災厄(재액)방지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 화재예방, 수재예방, 풍농기원, 마마방지, 가정의 우환방지를 위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곳 솟대를 중심으로 성역화하여 제사를 모셨고 부정함이 없도록 조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솟대는 액막이로서의 역할과 함께 마을 중심의 별읍으로 신의 하강처로서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솟대의 枯木인 立大木이 우주수(宇宙樹: cosmictree)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神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솟대는 곧 신이 내려 오는 통로이고 땅(地神)의 뜻이 하늘(天神)로 연결시켜 주는 靈樹의 立大木이다.

26) 전만엽씨 이야기 (67才)(상주군 사벌면 화달리 거주)

솫대는 물의 풍부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풍농을 가져다 주는 이곳 새리 마을의 主神이다. 즉 솫대를 잘 모셔짐에 따라 마을을 흉수나 가뭄, 기타의 재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리마을 동제사를 상신당과 하신당으로 구분해서 모실 때는 솫대가 하신당, 곧 하위신(下位神)으로 모셔져 왔으나 지금은 상·하신당이 합쳐짐에 따라 솫대가 이 마을을 수호해 주는 主神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믿어지는 최고의 神은 山神이며, 장승·솫대를 비롯한 여타의 신앙대상물은 산신의 하위신으로 마을 입구에 세워져 골매이 신으로 모셔진다. 따라서 장승·솫대는 동제의 한 과정으로서 모시는 것 외에도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복을 빌거나 질병퇴치, 재액구축을 위해서도 모셔진다. 개인적 차원의 사사로운 일에서는 마을의 주신인 산신보다 장승과 솫대가 더욱 밀접, 친근한 신앙대상물인데, 이는 산신이 마을 전체의 안위에 관련된 최고신이기엔 오히려 개인적 차원의 신앙대상으로는 거리감 즉 경외심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신이 마을 전체의 상징적인 최고의 상위의 신이라면 장승·솫대 등 기타 신앙대상물은 일상생활의 잡다한 일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실질적인 하위의 신이다. 그리하여 산신당은 대체로 마을 전체를 수호하기 위해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 마을 뒷산 중턱 정도에서 세워지고, 장승이나 솫대는 마을 입구 길목에 세워져서 실질적인 재액 초복과 풍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골매이신이다.<sup>27)</sup>

장승이 대체로 마을 수호의 주기능을 가졌을 때 솫대는 장승의 벽사기능을 보강·보조하고 물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풍농을 보장하는 농경신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새리마을 솫대는 재액구축의 구실 외에도 농경생산과 풍요와 깊은 관계가 있는 농신신앙(農神信仰)<sup>28)</sup>의 대상으로 또는 동제와 복합된 신앙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다고 본다. 새리마을의 솫대 신앙도 솫대를 동제의 主神 또는 하위신으로 신앙하며 정기적으로 정월 14일에 致祭하여 왔음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새리마을의 솫대는 동제의 대상신으로 마을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洞口에서 직접 잡귀·잡신·질병·재앙의 침범을 방어해 주는 守門神이라 할 수 있다.

27) 이필영, 앞의 논문, pp. 509-510.

28) 金宅圭, <한국의 농신앙에 대하여> 동양문화 10집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69, pp. 22-26.

## 5. 結 論

지금까지 상주 원흥리의 솃대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행하여지는 동제의 致祭과정과 솃대신앙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古記를 바탕으로 살펴 볼 때 솃대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 上代인들이 제천의식을 행하는 성역 즉 별읍을 의미하였고, 그 別邑 속에 솃대가 있고 그 솃대에 立大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록에 나오는 別邑, 蘇塗, 大木은 별개의 요소이나 이들이 같은 한 장소에 있고 그 기능이 공유하기 때문에 토착신앙 면에서 상대인들은 동일시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으로 원흥리의 솃대신앙도 古記錄의 의미와 기능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후대에 오면서 農神信仰의 대상으로 오늘날까지 모셔져 왔다고 추측해 본다.

원흥리의 솃대도 마을의 경계에 있고 일본의 대마도 天道신앙의 소도(卒土)처럼 수풀이 우거진 속에 위치함에 따라 聖林이 있는 聖域으로서 솃대가 있는 주위가 別邑인 동시에 大木에 해당되는 한 쌍의 枯木이 세워져 있었다.

솃대신앙도 원래는 상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각한 무력감, 공허감 내지는 대자연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신앙의 한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집단의 부락민들은 부락수호라는 공동의 염원 이외에도 농업의 풍요기원을 비롯하여 악질의 퇴치, 재액의 제거, 행로의 안전 등 모든 소망을 동제의 상신당과 솃대의 하신당에서 제사를 모시고 그들의 진취적인 생을 창조해 나가면서 매년 우순풍조 속에서 풍년농사를 빌었고, 항상 정신적 구심점을 솃대신앙을 통하여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곧 솃대신앙과 동신제가 발휘한 민간 토착신앙의 기능이었을 것이다.

이제 본고에서 밝힌 내용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원흥리 솃대에 대하여 솃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古老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솃대가 분명하며, 옛부터 동제와 복합관계를 지니면서 마을 수호신으로서 동제의 하위신격으로 致祭하고 있었다.

2) 솃대는 물과 가장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주장과 같이 원흥리 솃대도 가뭄과 홍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것은 원흥리를 중심한 지명 유래에서 더욱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마



을의 안녕과 수호 뿐만 아니라 풍농을 위해서 세워졌을 것이고 나아가 질병을 막아내는 액막이 역할도 하였다.

3) 원래는 원흥리도 상신당과 하신당으로 나누어서 제사를 모셔왔으며 솥대는 하신당 즉 하위신격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대체로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호를 염원하는 제사를 상신당에서 빌었다면 마을 주민 개개인들의 일상생활 등 잡다한 일들의 실질적인 수원성취는 마을 입구에 세워져 모셔온 하위신 솥대에게 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이로써 볼 때 원흥리의 솥대에는 새나 오리가 달려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륙지역의 전형적인 솥대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원흥리 솥대는 한 쌍의 枯木이 특이하였으며, 고목 자체가 立大木이며 솥대 주변이 동시에 벌음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주위에는 떡버들 樹林이 우거져 질병의 역신을 쫓기 위해서 ‘떡다리’(風葬)라는 민간습속이 옛부터 행하여졌고 이 聖樹 聖林 지역이 솥대신앙의 깊이를 보조·보강하여 성역의 역할과 기능을 오늘날까지 보존 전승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솥대신앙을 보조하는 여타의 신앙, 곧 산신당, 선돌, 탑, 서낭당, 동구나무, 장승 등에 대한 상호보완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민간신앙의 형성과 변화를 찾아 낼 때 고기록에 나타난 솥대의 역사와 원형이 재구성될 것이라고 본다.